

학문적인 의미에서 바라본 한글의 우수성

글_최기호 상명대 사범대학장 · 한국어정보학회장

우리에게 말이란 무엇인가

“말에 꼭 들어맞는 것만이 참다운 의미에서 존재한다”라고 칼 야스퍼스는 주장하였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들꽃이 ‘물망초’라든지 ‘달맞이꽃’이라고 이름지어 주면서 그 몸짓은 나에게 ‘잊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흰 와이셔츠를 반으로 잘라서 한 쪽은 ‘행주’라고 이름을 짓고 한 쪽은 ‘걸레’라고 이름을 지으면 그때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쓰임과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 따라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 ‘황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이름을 갖기를 원한다. 공자님도 바른 이름 즉 ‘정명(正名)’을 논하면서 “바른 이름을 가져야 바른 마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이 생겨야 바른 정치가 이뤄진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이름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말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까지도 지배한다”고 우후르프(Whorf)는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틀이 짜여진다는 것이다. 사피어(Sapir)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이 굴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지개의 색깔을 일곱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적절하게 표현해 줄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무지개의 빛깔은 수없이 많은 것이 실상이지만 말이 일곱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푸른 계통의 빛깔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산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나무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푸르죽죽한 것은 모두 ‘파랗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푸른 신호등’이란 말도 사실은 ‘초록 신호등’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시원하다’는 말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이 끝나서 시원한 것과 찬물을 마셔서 시원한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우리는 그저 시원하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합당한 올바른 말이 없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도 그런 경우는 무척 많다. 뜨거운 것과 매운

것을 구별 못하고 모두 'hot'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말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말이 없이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볼노우(Bolnow)는 “말은 생각의 통로”라고 하였다. 마치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생각도 말이 마련한 길을 따라 흐른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말을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사람의 문화생활의 핵심은 바로 말이다. 말은 그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양식의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우리말은 우리 문화의 고갱이고, 나라와 겨레의 바탕이다. 따라서 겨레란 언어공동체이며, 겨레의 힘은 곧 말을 바탕으로 하여 길러지는 것이다.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말과 나라는 성쇠를 같이한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말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추운 곳에서 눈과 함께 살아가는 에스키모 사람들의 말에는 눈에 관한 낱말이 많이 분화되어 있다. 우리말에는 함박눈, 싸락눈, 눈보라, 진눈깨비 등 몇 개의 낱말밖에 없는데, 에스키모 사람들은 눈에 관한 낱말이 30여 개나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에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기에 이에 관한 낱말이 많이 발달되었다. 벼씨, 모, 벼, 쌀(입쌀), 쌀밥(이밥) 등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라이스(rice)라는 한 낱말로 이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언어는 말과 글로 나뉜다. 말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음성언어'를 지칭하고 글은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어 이해하는 글자언어'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말과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 한국말은

가장 어려운 말이고 한글은 반대로 가장 쉬운 글자이다. 한국말은 참 어렵다. 우선 모음과 자음이 많고 발음이 발달되어 있어서 발음이 어렵다. 일본말은 모음이 5개인 데 우리말은 단모음만 10개나 되고 복모음까지 합치면 30여 개나 된다. 그러니까 어() 모음이 없고 발음을 발음할 수 없는 일본 사람들은 '서울'을 발음할 수 없어서 소우르(ソウル)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말은 어형변화가 많고 아주 발달하였다. 가령 영어의 'go'라는 낱말은 'went'나 'gone' 따위의 어형변화가 be동사, have동사의 결합을 합하여 10개 내외지만, 한국어의 '가다'라는 낱말은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 자격법어미 등의 변화가 다양하여 300여 개나 된다. 어형변화가 많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미세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발달된 언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분화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분화된 한국말을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한글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으로 창제되어서 배우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무슨 소리나 모두 표기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컴퓨터에 가장 알맞은 문자로서 지식정보사회의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과연 한글은 어떤 점에서 우수한 글자라고 하는가?

세계 학자들이 격찬하는 한글의 우수성

인류의 문화는 크게 네 차례의 변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변혁의 요소로서 말, 글자, 인쇄술, 뉴미디어를 들고 있다.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수렵사회를 이루었고 글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기록하고 축적해 농경사회를 형성했다. 활자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발달해 기술정보를 다량으로 공유해서 산업사회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사회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변혁의 주인공이 돼 인류문화를 급

속도로 혁신시키고 있다. 안경은 눈, 마이크는 입, 자동차는 발을 확장시켰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는 사람의 두뇌를 확장시키는 대변혁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한국말을 갖고 있었으며,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고려 우왕 3년(1377)에 개발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간행하였는데,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1455)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한글은 뉴미디어 컴퓨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정보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까닭도 전적으로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세계 문자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는 한글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경복궁 집현전에서 한글(훈민정음)을 오직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로 음성기관을 본떠서 친히 창제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계해(癸亥, 1443)년 12월 조에는 “세종대왕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정통 11년(1446) 9월 상한(양력 10월 9일)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책을 완성하여 세상에 펴내었다. 이때 글자이름은 훈민정음이었었는데, 그후로 언문, 정음, 압클, 절글, 중글, 반절, 가가, 국문 등으로 부르다가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 서문에 훈민정음 창제 동기가 잘 밝혀져 있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때 어리석은 백성(愚民)으로는 통치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訓民)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민(愚民) 상태로는 세종대왕이 왕도를 이룰 수가 없고, 훈민을 하여 백성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태평천하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논어」 「맹자」 「대학」 「주역」 등의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성리대전」 「설문해자」 등의 고전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대단한 언어학자가 되었다. 또 세종대왕은 왕도를 충실히 닦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고전에서 왕이 가는 길은 ‘치국평천하’이다. 즉 나라를 다스려서 온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왕도라는 사실을 세종은 잘 알았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이기에 「농사직설」 같은 책을 편찬하고, 측우기, 풍향기, 수표 등을 만들어 농업을 장려하였다. 농사를 위하여 별자리까지 연구하고 해시계, 물시계 등도 연구하고 천문학도 깊게 연구하였다.

한편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음악을 중요시하였는데, 당악과 아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세종대왕은 중국 음악과 조선 음악의 차이점을 깨닫는다. 그래서 중국 음악을 잘 연주하려면 중국에서 생산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야 하고 조선 음악을 잘 연주하려면 조선에서 생산되는 돌이나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세종대왕은 강조하였다.

이처럼 풍토(風土)에 따라 바람소리가 다르고, 바람소리가 다르기에 말이 달라지는 것에서 세종대왕은 중국 말과 글이 우리의 말과 글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위대한 발견이었다.

이리하여 세종대왕은 우리 백성에게 알맞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자기의 왕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백성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 결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우선 한글은 우주万물의 구성원리인 음양오행의 바탕에서 창제됐다. 모음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아()와 으()와 이()를 만들고 이들을 조합해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 토박이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은 문화의 알맹이고, 나라와 겨레의 바탕이다. 우리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지는 것은 단순히 국어를 사랑하지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른, 올바른 국어생활에서 바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음은 오음인 어금닛소리,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성기관의 형상을 본떠서 기본 글자(ㄱ, ㄴ, ㄷ, ㄱ, ㅅ, ㅇ)를 만들었다. 사람의 왼쪽 얼굴을 보고 조사하였는데, '니은(ㄴ)'이 '혀끝이 웃잇몸에 닿는 형상을 닮은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획을 가해 나머지 모든 자음 글자를 창제한 것이다.

한글은 일음일자(一音一字)와 일자일음(一字一音)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음성인식에도 뛰어나다. 컴퓨터에서 자판 없이 음성인식으로 입력시킬 때 가장 적합한 글자로 평가된다. 음소문자라는 영어조차도 음성인식 측면에서는 아주 원시적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는 그 발음이 [ei] [] [] [] [a] [] [] 등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읽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글자 옆에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까닭이다. 'knife'라는 단어는 [naif]라고 읽지만, [naif]라는 발음을 원래의 단어 knife로 복원하는 일이 불가능해 음성인식에 적절하지 않다.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의 제어드 다이어먼드 교수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이고, 이 때문에 남북한이 세계에서 문맹자가 가장 적다고 극찬하는 논문을 과학잡지 『디스커버』 6월호에 발표했다. 미국 시카고대 맥콜리 교수와 독일 함부르크대 샷세 교수 같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창제원리에 놀라며

그 조직성과 과학성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문맹퇴치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세종대왕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에서도 세종대왕이 한글창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글이 세계적인 글자로 칭찬을 받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총아요 도구로서 뛰어났는데도 우리는 요즘 한자병용이니 한자혼용이니 하며 한글이 부족한 글자라고 비하하며 '한자교육법'까지 만들려는 얼빠진 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한심하기를 넘어서 측은하기 그지없다.

중국의 한자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라 경덕왕 때(757년)에는 우리의 땅이름, 사람이름 등을 한자식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한자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토박이말은 중국의 말에 눌리게 되었다. '가람'과 '뫼'는 '강(江)'과 '산(山)'으로 바뀌고 '온'과 '즈믄'은 '백(百)'과 '천(千)'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은 토박이말 '아들'과 '딸' 대신 '영운'과 '영애'라고 써야 유식하고 '집'보다 '택'이라고 써야 높임말이 되는 사대사상이 나타난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토박이말

필자가 펴낸 「토박이말 쓰임사전」에는 국어사전에 없



홍명희의 「임꺽정」을 비롯하여 김유정의 「동백꽃」, 채만식의 「탁류」, 박경리의 「토지」, 김주영의 「객주」, 최명희의 「혼불」, 김원일의 「겨울골짜기」, 김성동의 「국수」 등은 우리말을 아주 잘 살려 쓴 아름다운 소설이다

는 아름다운 토박이말이 자그마치 1만 2,700여 개나 된다. 거기에는, “꽃등, 꽃벌미, 꽃겨집, 꽃잠, 살보드랍다, 결낫질, 나이금, 내림손맛, 네굽씨름, 들싸엮다, 되마중, 눈심지, 비단가난, 우리리창, 주눅바치, 흰추위” 따위 등 우리가 되살려 쓰기 좋은 말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땅의 민초들의 삶이 폭 삭아 향기 나는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다. 이 낱말들은 수천 년 이 땅을 살아온 민초들의 멋과 한이 짙게 화석으로 남은 것이다. 말의 공간이라고 할 땅 이름에서도 구수하고 질박한 고향 내음을 맡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홍명희의 「임꺽정」을 비롯하여 김유정의 「동백꽃」, 채만식의 「탁류」, 박경리의 「토지」, 김주영의 「객주」, 최명희의 「혼불」, 김원일의 「겨울골짜기」, 김성동의 「국수」 등은 우리말을 아주 잘 살려 쓴 아름다운 소설이다. 영국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대체로 고급스러운 것은 프랑스어로 표현하고 영어로는 천박스러운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에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토박이말을 구사하여 문학작품을 잘 씀으로써 천박스럽게 쓰이던 영어를 높은 수준의 언어로 만들었던 것이다.

어려운 한자말과 일본말의 찌꺼기와 서양말로 잡탕이 된 국어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토박이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은 문화의 알맹이고, 나라와 겨레의 바탕이다. “겨레란 언어공동체이며, 겨레의 힘은 곧 말을 바탕으로 하여 길러진다”고 주시경 선생은 가르쳤다. 박은식 선생도 “일본말을 가르치면 일본 사람이 되고 중국말을 가르치면 중국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우리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것은 단순히 국어를 사랑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른, 올바른 국어생활에서 바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부모들은 딸을 시집보낼 때 “우리 딸에게 프랑스 말만은 잘 가르쳤다”고 자랑한다고 한다. 프랑스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프랑스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인격체를 갖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나 열쇠 꾸러미를 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가르치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말을 사랑하게 해야 할 것이다. 🌸